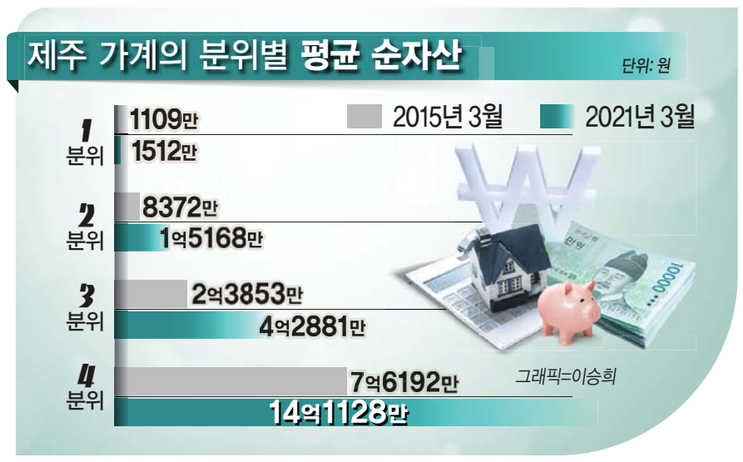
# 아파트값 폭등 도민 자산 불평등만 키웠다

## 상위 25% 순자산 14억1000만원… 하위 25%는 1500만원
## 2015년 후 상위 25% 전국 3억9500만·제주 6억4900만원 ↑
## 경제적 비용 절감·사회 갈등 해소 위한 주거안정대책 시급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화되며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이 절실해졌다. 갈수록 격차를 벌리는 자산 불평등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윤구 과장이 내놓은 '제주지역 가계순자산 규모 및 자산 격차 현황' 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도내 가계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9154만원이다. 2015년 3월(2억6258만원)보다 2억2896만원 증가하며 전국평균 순자산(4억3736만원)을 웃돌았다. 도내 가계 자산은 5억5989만원, 부채는 6835만원으로 전국보다 자산이 5736만원 높고, 부채도 323만원 더 많았다.

도내 가계의 높은 순자산 증가는 2015년 3월~2021년 3월 중 연평균 증가율이 11.3%로, 전국 수준(6.4%)을 웃돈 영향이 크다.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편차가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분위별로는 1분위 순자산이 2015년 3월 1109만원에서 2021년 3월 1512만원으로 402만원 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기간 2분위는 6796만원(8372만→1억5168만원) 늘었고, 3분위는 1억9029만원(2억3853만→4억2881만원) 증가했다. 4분위는 7억6192만원에서 14억1128만원으로 6억4935만원 늘며 서울(20억100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또 2019년 3월 도내 아파트 상위 20%의 매매가격은 하위 20% 매매가격의 4.4배였던 데서 2021년 3월에는 5.0배로 가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자영업자의 자산불평등 지수도 전국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그룹내 상위 25%의 순자산 점유 비중은 70.2%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데, 이는 영세자영업자가 많고 규모별 수익성 격차가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2015년 기준 도내 종사자수 20인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3억4900만원으로 전국(1억26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데, 5인 미만은 2200만원으로 전국(19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도내 20인 이상과 5인 미만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차이가 15.7배로 전국(6.7배)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내 2030 청년세대 가구간 자산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상속세(2017년 548억→2021년 942억원)와 증여세(160억→402억원) 징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소득 측면보다는 '세대간 자산이전'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윤구 과장은 "최근 제주지역의 자산 불평등 수준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평가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요 측면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분양 전환, 청년과 자영업자 등 저자산·저신용 계층의 자산 축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강행 중단하라"

## 제주세계자연유산마을협의회 26일 성명 발표

제주세계자연유산마을협의회(이하 자연유산마을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는 주민 동의 없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강행과 주민들에 대한 법적 대응 협박을 멈추고 월정리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자연유산마을협의회는 제주도 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위치한 김녕리, 덕천리, 선흘1리, 선흘2리, 성산리, 월정리, 행원리 등 총 7개 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됐다.

자연유산마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 월정리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제주도와 큰 갈등을 겪고 있다"며 "2007년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이후 바다 오염과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겪는 주민과 해녀들은 2014년 증설 이후 또다시 추진되는 제주도의 일방적인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부하수처리장은 국내외에 자랑하고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 466호인 용천동굴에 접해 있다"며 "제주도는 용천 동굴의 보호와 주민 수용성은 뒤로 한 채 증설을 강행하고 있고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영기자

# 서귀포시 치유의숲에 '웰에이징 건강숲'

## 고혈압·당뇨병·비만 등 유소견 15명 대상 운영

서귀포시 치유의숲이 '웰에이징 건강숲'을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건강한 서귀포 시민과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기 위해 생활습관질환인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웰에이징 건강숲' 항노화 프로그램 - 산림치유 1733(1일 7000보 걷고 삼시세끼 삼삼하게)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운영 예정인 웰에이징 건강숲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과 협업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 지표인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이해, 습관 형성 과정 알기 및 표현, 공감하기,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걷기, 감각 느끼기, 마음 챙김 명상 등 건강 워크북 등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우선 순위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생활습관질환자인 대사증후군 (비만 등) 유소견 관리자다. 모집은 인원 15명, 선착순이며 운영기간 내 4회 이상 참석 가능해야 한다. 모집은 오는 8월10일까지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농경지 침수 예방 위해 서귀포시 배수 개선사업

서귀포시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121억원을 투입, 상습 침수지역 8개 지구·4.3㎞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서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경지 6042ha의 배수로시설 82개 지구·262.6㎞에 대해 연차적으로 국비 포함 7613억원을 들여 배수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내년부터 이뤄지는 사업 물량도 144.8㎞ 구간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84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까지 배수로시설 13개 지구·105.2㎞에 대해 2540억원을 투입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0년까지 5개 지구·5.7㎞ 구간에 60억원을 투자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하례·신풍·동광 등 3개 지구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에 상예·강정·위미 3개 지구와 함께 하례·신풍·동광·신흥1·토산2 등 5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72억원과 50억원을 각각 투입해 배수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시는 우기철을 앞둬 1억원을 들여 대정 신도·무릉, 안덕 동광 등 서부지역 저류지 5곳에서 지장물 7만5000t을 수거·처리했다. 서귀포지역에 조성한 우수 저류지는 109곳·300만t 규모다. 백금탁기자

**노루피해로 쑥대밭으로 변한 농경지** 26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한 농경지에 마른 장마속에 어렵게 올라온 콩새싹이 노루들이 훑고 가는 바람에 밑둥지만 남았다. 강희만기자

# "배합사료 쓰세요"… 최대 2억3000만원 지원

## 제주시, 직불제 추가 모집

제주시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대상자를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제 사업 양식 어가는 생사료 대신 사료검정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사용해야 한다.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료 20㎏ 한 포대당 5420원~1만239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양식 어가는 ▷면허(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은범기자